

'원정도박' 양현석, 1심 벌금형

1500만원으로 구형보다 높아
"사회의식 저해, 부정적 영향"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도 같은 수준의 형을 선고 받았다.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4억원이 넘는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만 내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이 질문한 "선



해의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고 결과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계획 있나", "비이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연습생 한모씨에 대한 협박이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해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을 떠났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5여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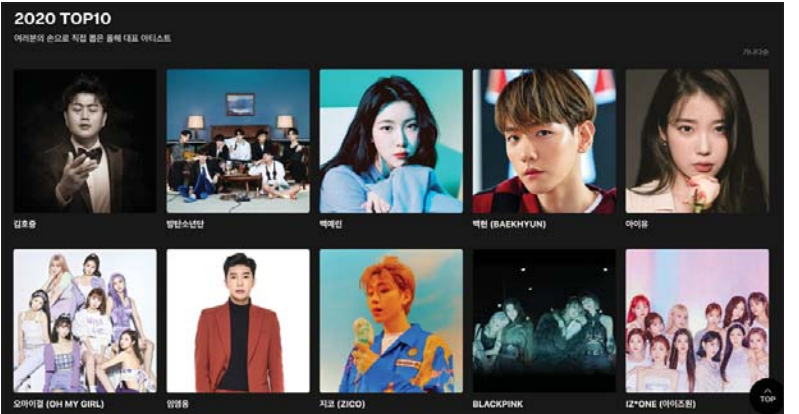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양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 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멜론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한 해 동안 멜론에서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 10명(팀)을 의미하는 'TOP 10' 아티스트 선정을 위한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김호중, 방탄소년단, 백예린, 백현, 아이유, 오마이걸, 임영웅, 지코, 블랙핑크, 아이즈원을 MMA 2020의 TOP10으로 발표한 바 있다.

멜론뮤직어워드 2020, 팬들 관심 뜨겁다

1차 투표수 전년보다 51% 증가

TOP10으로 방탄소년단
아이유·블랙핑크 등 올라

메인 공연 펼쳐지는 본식
내달 5일 오후 7시 공개돼

비대면 등 시공간을 초월해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된 한 해였다. 팬과 아티스트들의 유대감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MMA 2020 투표 독려로 이어졌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MMA 응원보드' 이벤트를 통해 'MMA 응원보드'로 전달된 응원메시지와 작성자의 멜론 닉네임을 주요상 및 장르상 부문 수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달되는 응원 메시지 외에도 BEST 팬상-에어팟 프로(3명), BEST 애정상-2021 다이어리(50명), BEST 주점상-코다 필름 카메라(30명)를 선정한 선물을 증정한다. MMA 페이지와 멜론해택관에서는 업그레이드된 MMA 2020 출석 체크, MMA 2020 VIP KIT 이벤트도 만날 수 있다.

한편, MMA 2020은 12월 2일~5일까지 온라인·비대면으로 4일간 'MMA WEEK'로 진행된다. 멜론은 MMA WEEK 동안 콘서트 "Stay Closer in Music"에 맞춰 사전 이벤트, 사전 공연, 메인 공연, 특별 영상 등 비대면 음악 축제에 맞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MMA 2020 메인 공연이 펼쳐지는 본식은 12월 5일 오후 7시 공개되며, 멜론 앱/웹, 카카오톡 #카카오TV 탭,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전체 일정 및 상세한 내용은 멜론 MMA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시스

KBS 2TV '트롯 전국체전'

내달 5일 첫방 160분 특별 편성

방송을 앞둔 KBS 2TV '트롯 전국체전'이 160분 특별 편성을 확정했다.

지난 27일 '트롯 전국체전'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160분 특별 편성을 확정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전국 8개 지역에 숨은 트로트 유망주를 발굴해 지역 간 대항전을 벌이는 오디션 예능이다. 밴드 'YB'의 윤도현이 MC를 맡고 배우 고두심(제주도)과 가수 남진(전라도), 김수희(경기도), 주현미(서울), 김연자(글로벌), 설운도(경상도), 조항조(충청도), 김범룡(강원도)이 전국 팔도 감독으로 출연한다.

송가인, 주영훈, 별, 나태주, 하성운, 황치열, 박현빈 등이 코치진으로, 임하룡이 특별 응원단장으로 출연을 확정했으며, 진해성과 설하운, 윤서령, 장혜리, 허공, 박현호, 마이진, 이상호와 이상민 형제 등 87개 팀이 참가한다. 다음달 5일 오후 처음 방송한다. /뉴시스



디즈니 애니 '소울' 국내 엔딩곡 창작 '눈길'

윌트디즈니코리아, 한국 아티스트 정체 맞치는 이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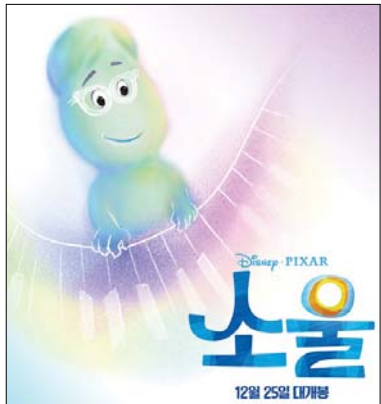
디즈니·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피트 닥터·캠프 파워드 감독)이 국내 엔딩곡을 창작한 한국 아티스트가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윌트디즈니코리아는 27일 이러한 소식을 깜작 발표하며 SNS 채널을 통해 '소울'에 참여한 한국 아티스트의 정체를 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코', '겨울왕국 2', '물린' 등 기존 애니메이션 작품에 참여한 한국 아티스트들이 원곡을 번안한 커버곡을 가창한 것과 달리 '소울'에서는 국내 아티스트가 작품에 영감을 받아 직접 작사, 작곡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소울 아티스트 캐릭터는 안경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의 정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울'에서 마스터 라이팅을 담당할 픽사의 조성연 애니메이터가 직접 그렸다.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저마다의 성격을 갖춘 영혼이 지구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픽사의



재미있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소울'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된 조와 지구에 가고 싶지 않은 영혼 22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다음 달 25일 개봉한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